

강의 영상과 함께 교안을 보세요(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youtu.be/x1IOJqJ4i5o>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삼상26:17-25)

1.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가지고 말해보십시오.

① (고전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② (시119: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고)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고난에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진다.

둘째, 고난은 관계를 탄탄히 다져준다.

셋째,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 놓는다.

2.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경우에서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주어진 말씀과 성구들을 읽고 함께 나누어보십시오

첫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아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나이다.”

둘째, 은혜로 행하는 것을 나의 공의와 신실함으로 삼으라.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셋째,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